

8. 어떻게 선교사 멤버케어 제공자가 될 수 있는가? How Does a Person Become a Missionary Member Care Provider?

짧고 간단한 요약 Short & Simple Summary

“어떻게 선교사 멤버케어 제공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짧고 간단한 대답은 없다. 선교사 멤버케어는 새로운 분야이기에 여기에 관심 있는 자들을 위해 개발된 일반적 방식이 없다. 다음 주제들은 멤버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들이다.

부르심 Call
읽기 Reading
훈련 Training
모델/멘토 Model/Mentor
대회들 Conferences
선교사 경험 Missionary Experience
공식 교육 Formal Education
마지막 제언들 Final Comments

만약 당신이 좀 더 상세히 알고 싶거나 다른 자료들과 연결되기 원한다면 계속 읽으라.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선교사 멤버케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교사 멤버케어 제공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은 없다. 한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거나, 생일 카드나 이메일을 보내 격려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없이, 하려고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다른 한편, 선교사를 심리적으로 케어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대학이나 의과 대학에 가야하고, 몇 년간 정신의학 레지던트 과정을 수련받아야 한다.

두 그룹이 멤버케어를 위한 지침, 표준, 규칙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다. 첫째는 세기의 전환점에 캐나다 복음주의 연맹 EFC(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에 의해 개발된 ‘멤버케어의 최고 실행 규칙(the Code of Best Practice in Member Care)’이다. 비록 캐나다 선교단체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전세계 사람들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된다. 8 페이지로 된 이 문서는 멤버케어 사역자의 준비에 대해 다루지는 않았지만, 멤버케어 사역자들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 있다.

http://www.worldevangelicalalliance.com/commissions/mc/mc_southafrica/resources/Code%20of%20Best%20Practice%20in%20Member%20Care_EFC.pdf.

거의 10여년 후에 열린 ‘글로벌 연결을 위한 멤버케어 포럼(Member Care Forum of Global Connections)’에서 11개 핵심 가치로 구성된 27 페이지의 문서로 “멤버케어의 좋은 실행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Good Practice in Member Care)”을 만들었다. 각각의 핵심 가치에 이어 그 가치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돕는 더 상세한 지침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 지침들은 영국 선교사들을 위해 개발되었지만, 확실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된다.

(멤버케어 제공자들의) 핵심 가치 11 은 “멤버케어는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충분한 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지침들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부분, “제공자들을 위한 적절한 체계”에서는 윤리, 상호책임, 감독 등을 다룬다.

둘째 부분, “멤버케어 제공자들을 위한 훈련”은 아래 같이 세 문장으로 나뉘인다 (p. 23).

- “멤버케어 제공자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을 것을 보장하기.” 예를 들어, 듣는 기술, 목회적 돌봄, 어린이 보호, 전문적 치료를 권장할 시기 등이다.
- 멤버케어 제공자들이 선교나 인도주의 분야에 관한 대회나 다른 이들로 부터 배우는 학습을 통해 계속되는 정기적 훈련에 접하는 것을 보장하기.
- “전문적인 멤버케어 제공자들이 그들의 등록/승인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장교육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유지를 보장하기 (멤버케어의 좋은 실행을 위한 가이드, p. 23).

전체 문서 사본은 사이트

<http://www.globalconnections.co.uk/Resources/Global%20Connections/Codes%20and%20Standards/Member%20Care%20Guidelines%20complete.pdf> 에 있는 글로벌 연결(Global Connections)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선교사 멤버케어 제공자가 되기 위한 명확한 코스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1 인칭의 시각으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공유할 것이다.

부르심 Call

선교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다. (나의 아내) 바니와 나는 항상 기도와 후원금을 통해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멤버케어에 대한 부르심은 몇 년 동안 점차 발전했다.

- 우리 부부의 25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갔던 1989년의 첫 번째 단기 선교를 통해 (내가 47세가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선교 사역으로의 일반적인 부르심을 느꼈다.
- 우리는 선교단체와 접촉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 나의 박사학위는 실험심리학, 특별히 주의 학습에 대한 연구였다. 그러나 그 단체들은 상담가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992년, 내가 5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상담심리학이라는 새전문화 과정에 들어갔다. 그 과정 가운데, 연구조사를 통해 해외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그들이 속한 단체 밖의 상담가들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를 파송할 선교단체와의 접촉을 중단했다.
- 1996년, 상담심리 면허 취득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준전문인들(paraprofessionals)도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만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면허나 자격증을 추구하지 않았다.
- 나는 다양한 경험을 얻기 위해 몇 개의 실습과목을 이수하였고, 내가 55세가 되던 1997년에 우리 부부는 갈등 해결을 돕기 위해 첫 번째 멤버케어 여행을 가게 되었다.
- 1998년, 나는 “선교사들이 알아야만 하는... [선교사 핸드북]” 시리즈로 첫 브라우저를 썼다.

비록 나의 부르심이 첫 8년 동안 점점 더 명확해졌지만,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부르심은 한 사람에게 뿐 아니라 그의(그녀의) 배우자에게도 중요하다. 바니(Bonnie)는

평생교육자격증과 ‘국제기독교학교협회 ACSI(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멤버십을 얻기 위해 교직으로 돌아갔고 그녀는 우리 팀의 어린이 사역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르심은 또한 후원, 특별히 재정모금의 증가가 요구된다. 그것은 또한 전임으로 멤버케어에 헌신하기 위해 60 세에 우리의 직장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부르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는 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dbListArticles.asp?TOPICID=17> 를 보라.

읽기 Reading

현존하는 문헌을 읽는 것은 또한 선교사 멤버케어 제공자가 되기 위한 주요 부분이다. 50 세에, 나는 20 대에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보다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50 대(代)의 개인 컴퓨터 사용으로 나의 메모리(기억력)를 보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의 기초를 배웠고, 잡지이든, 신문 기사이든, 책이든, 편집된 책의 한 장이든 내가 읽은 모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했다.

<http://www.missionarycare.com/database.htm> 에서 볼수 있는 “메모리 보충” 데이터 베이스는 보고서, 논문,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선교사 멤버케어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는 없으나, 그들은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읽고 저장할 필요는 있다.

훈련 Training

웹사이트 <http://www.globalconnections.co.uk/resources/codesandstandards/membercareguidelines/section11.htm> 에서 볼 수 있는 “멤버케어의 좋은 실행을 위한 지침”에서 멤버케어 제공자들은 듣는 기술, 목회적 돌봄, 어린이 보호, 권장되고 있는 전문치료등의 영역에서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는 1992 년에 켄터키 주립대학에서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공인된 상담심리 재-전문화 과정을 시작했다. 또한 애즈버리 신학대학원에서 그 과정의 일부로 ‘결혼과 가정’을 부전공으로 했다. 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 주립대학, 사립 비종교 행동건강센터에서 실습과정을 마쳤다. 충분한 훈련을 받았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1996 년에 면허 교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시험인 심리학전문목시험(Examin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Psychology)을 통과했다.

물론 선교사 멤버케어 준비에 관심이 있는 각 개인이 이런 동일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가 적절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오늘날은 많은 온라인 교육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들 중 어떤 것은 듣는 기술, 목회적 돌봄, 어린이 보호, 전문적 치료를 권장할 시기 등의 영역에서 실제적 경험을 적절하게 주지는 못한다.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나에게 “책으로 배운 지식”을 가르쳐주었지만, 지도 받았던 실습과목은 책에 쓰여지지 않은 것들에 나를 드러내 보이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모델/멘토 Model/Mentor

1995년 4월에 애즈버리 대학 동료 중 한 사람이 어떤 대회에 참석한 후 돌아와서 “론, 내가 지난 주 한 대회에서 당신이 ‘선교사와 함께’에 대해 말해왔던 바로 그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네”라고 말했다. 그 당시 나는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고, 다른 누군가가 그 일과 연관되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즉시 연락처를 받은 나는, 그날 저녁 바니와 15년 동안 그 일에 연관되어 온 한 부부에게 전화 연락을 했다.

그들은 우리보다 열 살 가량 더 많았고, 다른 대학에서 은퇴 과정 중에 있었다. 우리는 한 시간 가량 이야기 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멤버케어의 세계를 열어 주었고, 11월에 열리는 (정신건강과 선교에 관한) 대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했다. 그들은 우리의 모델이 되었고, 우리는 후에 그들에게 우리가 (아직 고용되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은퇴하고 선교사로서 전임으로 섬기고) 있는 곳까지 우리를 멘토로서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했고, 우리는 매년 대회에서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대회들 Conferences

1995년 11월에 나는 인디애나주 앙골라(Angola, IN)에서 열린 ‘정신건강과 선교에 관한 연례 대회(the annual conference on Mental Health and Missions)’에 참석했다. 이 대회는 선교사 멤버케어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 준 매우 흥분된 시간이었다. 대회의 최초 미팅 이후에 나는 바니에게 “내년에도 당신이 나와 함께 이곳에 왔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은 우리와 관심이 같은 사람들이야”라고 말했다. 나는 전에 읽었던 기사와 책을 썼던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 나는 그들과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들과 교제할 수 있었다. 이 대회는 멤버케어 준비 과정으로 참석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신학대학 학생들을 격려해준다. 그 때 이후로 바니와 나는 이 선교 대회(MHM)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물론,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PTM(Pastors to Missionaries 목사에서 선교사까지) 대회와 같은 다른 비슷한 대회도 매년 열린다. 그런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제발표에서 배울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선교사 멤버케어에 연관된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해준다. 그러한 대회 목록은 14장에서 볼 수 있다.

선교사 경험 Missionary Experience

내가 하지 못한 한 가지는 장기 선교사 경험이다. 비록 내가 단기 선교를 경험했다고 해도,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언어 공부와 함께 몇 년을 살아본 경험은 없다. 나는 많은 헬라어 강좌를 들었고, 학부과정에서 독일어를 일년 공부했고, 박사학위 과정의 일환으로 불어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50세가 다 되어 스페인어를 한 분기(1/4) 정도 끝냈을 때, 나는 내가 30세 때 만큼 빨리 학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상담 재전문화과정과 네 개의 실습과목을 끝냈을 때, 내 나이는 55세였고, 내 인생의 남은 기간을 선교사 멤버케어 준비에 사용하면서 실제로 멤버케어를 해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록 장기선교사 경험이 나에게 선교사들과 더 깊은 신뢰를 갖도록 해줄 뿐 아니라, 좀 더 이해와 공감을 하도록 도와주겠지만, 나는 장기 선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식 교육 Formal Education

내가 선교사 멤버케어 사역을 준비할 때, 그에 관한 공식 교육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멤버케어에 대한 얼마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다.

컬럼비아 국제대학교(Columbia International University)는 멤버케어에 대한 학위를 제공한다 (참조 <http://www.ciu.edu/academic-programs/doctor-ministry-program>). 멤버케어 박사학위(D.Min.) 입학 조건은 (평균 3.0 이상의) 목회학석사(M.Div.) 학위와 적어도 3 년 이상의 활발한 사역경험이다.

또한, 레드클리프 대학은 멤버케어 석사학위(MA)를 제공한다 (참조 <http://www.redcliffe.org/Study/PostgraduateCourses/MemberCare>). 이 학위는 3 주 동안 합숙하며 집중하는 여름학교와 이메일로 제공하는 자습 과정으로 3 년에서 4 년 안에 마칠 수 있다. 이 멤버케어에 관한 석사학위(MA)는 글라우체스터셔셔(Gloucestershire) 대학교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다.

마지막 제언들 Final Comments

특정 선교단체와 함께 하는 선교사 멤버케어 사역으로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단체에 연락해서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단체들은 특정한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원한다. 또 다른 단체들은 어떤 특정한 전문직에 대한 증명서나 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 여전히 다른 단체들 가운데 학위나 증명서가 필요없는 곳도 있지만, 그들은 특정한 성품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

다른 사람들은 의사, 정신과 의사, 상담가, 심리학자, 목회적 상담가 등과 같이 특정한 역량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부르심을 느낀다. 이 사람들은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면허를 취득하는지 알기 위해 전문가협회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일하게 될 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주 또는 국가 안에 있는 전문가협회에 연락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을 실제로 공감하며 들어주려는 사람 즉, 신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면허에는 그리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리차드와 로라 매 가드너(Richard Gardner and Laura Mae Gardner)가 쓴 “멤버케어 사역자 훈련과 활용”은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mc-counting-the-cost-book>의 “선교사 케어: 세계 복음화의 비용 계산하기(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의 23 장에서 볼 수 있다. 이 장은 훈련에 대한 추가 제안을 담고 있다.

독자들에게 보내는 저자의 부탁. 만일 이 장의 질문에 대하여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다른 제안이 있다면 ron@missionarycar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에 3 가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엇이 더 포함 될 필요가 있는가? (2) 가능하다면 관련된 웹 주소를 링크로 첨부해 주십시오, (3) “어떻게 선교사 멤버케어 제공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저는 이러한 독자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이 책을 업데이트하고 증보할 계획입니다.

역자주. 한국어로는 anmcusa@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